

## 제10장 그리스도의 교회 첫 선교사

동석기 목사는 독립선교사 신분으로 귀국할 결심을 했지만,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독립선교사로 활동하려면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선교활동비’를 최대한 모금하여 귀국하기로 마음을 먹고 남부지역의 ‘그리스도인교회(Christian Church)’들부터 순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앨라배마주(Alabama) 해밀턴 카운티(Hamilton County)에 있는 도시인 몽고메리(Montgomery)에 갔었다.



툼슨(T. B. Thompson)[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

이곳에서 동석기 목사는 정말 뜻하지 않게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의 전도자들인 톰슨 [Tannie B. Thompson, 1882.~1948.], 데커[Floyd A. Decker, 1898.~1960.], 그리고 브리워[Charles R. Brewer, 1890.~1971.], 칼훈[Hall L. Calhoun, 1863.~1935.] 등을 만나게 되어 계획에도 없는 성서 토론을 하게 되었다. 토론 결과 동석기는 “신약성서는 악기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므로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성서적이다.”라는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77.]



데커(F. A. Decker)[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이때 동석기 목사는 ‘성서의 침묵은 강한 부정이다

(The silence of the Bible is a strong denial.)’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톰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들을 동석기에 소개하면서 만나보도록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브리워(C. R. Brewer)[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동 형제, 테네시주(Tennessee) 내슈빌(Nashville)에 있는 센추럴 그리스도의 교회(Central Church of Christ)와 립스콤대학교(David Lipscomb University)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곳으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곳에 가서 피트만[Samuel P. Pittman, 1876.~1965.], 형제(교수)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서, 「동석기 전도자 생애와 신앙」, 7. 참조]



칼훈(H. L. Calhoun)[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툼슨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동한 동석기 목사는 그가 소개해 준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신약성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원리’에 대하여 상세히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으며, 새롭게 정리하는 유익한 시간도 되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들의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설명해주는 가르침에서 신약성서가 말하고 있는 ‘원형의 교회’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인교회보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동석기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Yours sincerely,  
S. P. Pittman*

피트만(Samuel P. Pittman)[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가서 톰슨(Tannie B. Thompson) 형제와 데커(Floyd A. Decker) 형제를 만나기 전에 나는 주님의 예배에서 악기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을 알아낸 것은 내 마음속에 새로운 일이었다……. 나는 주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에서 악기를 포기했다. 그때 나는 진리와 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예배를 위해 신약성서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렸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77.]

그리스도의 교회를 선택한 동석기 목사는 즉시 신

시내티 성서신학교 측에 연락하여 자신의 신앙적인 견해를 전달하고 교제 중단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자신의 교적을 그리스도인교회 목사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자로 옮겼다. 이를 두고 혹자는 ‘동석기는 재환원(再還元) 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견해를 신약교회로의 환원이라는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지에 대해서 필자는 의문을 품을 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자 신분이 된 동석기는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조선에서 환원 운동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선교사로 귀국했으면 좋겠다.”라는 결심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동석기의 결심을 확인한 ‘테네시주(Tennessee) 내슈빌(Nashville) 지역과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로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내슈빌의 웨이버리-벨몬트 그리스도의 교회(Waverly-Belmont Church of Christ)로부터 ‘매월 선교비를 부담하고 맡아 관리하는 대표 후원교회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흔쾌히 받았다. 이어 내슈빌의 12번가 그리스도의 교회(12th Avenue Church of Christ)와 몽고메리의 카토마 스트리트 그

리스도의 교회[Catoma Street Church of Christ]도 후원교회가 되어 주었다. 또한, 웨이버리-벨몬트교회의 장로들은 장로회를 소집하여 동석기를 일제 식민지배의 고통과 핍박을 받는 조선인들의 선교를 위하여 ‘조선인 선교사(native Korean missionary)’로 임명까지 해주었다.



Waverly-Belmont Church of Christ[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이러한 우여곡절(迂餘曲折)의 여러 과정을 거쳐 동석기는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파송 받은 최초 선교사로 임명(任命)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조선 미(북) 감리교회에 속한 목사도, 그리스도인교회에 적을 둔 목사도, 독립선교사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의 조선인 선교사 신분으로 벽찬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다. 결국, 그는 계획했던 대로 연장 교육을 통해 신

시내티 성서신학교 대학원에서 재충전을 마친 4개월 후인 1930년 10월 18일(토) 일제에 강점된 조국 조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



Catoma Street Church of Christ[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이때 동석기 선교사는 “나는 미국에 온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홀가분한 마음과 Church of Christ의 선교사로서 새로운 선교 현장을 향한 기대로 마음이 너무나 설렜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다 보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신 지난 일들이 너무나 감사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감사의 마음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하사마 마루



(Hasama Maru)에 승선하여 조국을 조선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러자 『신한민보』(1930.10.16.)는 그의 귀국 소식을 보도했다.



12th Avenue Church of Christ[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나는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웨이버리 벨몬트 그리스도의 교회와 12번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있는 카토마 스트리트 그리스도의 교회와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친구들이 조선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개별적으로 파송하여 조선에 돌아가도록 해준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도움으로 조선에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고, 나의 주께서는 조선 사람들을 불러 내 입술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

우리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해주셨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77~278.]

“동 목사는 말하기를 앞으로 귀국하여 ‘자유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하여 종교 사업에 헌신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있어야만 교우들의 아이들을 모아 신고 다닐 수가 있으므로 이번에 ‘자동차 한 대’를 사서 가지고 간다고 하였다. 동 목사는 18일(1930년 10월 18일)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한민보』(1930.10.16.)]

그런데 위에 언급된 자동차는 자전차(自轉車) 즉 자전거(自轉車)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인 양석문 목사가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기 때문이다.

“동석기 목사님은 귀국하면서 자전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자전거가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동석기 선교사는 1930년 11월 8일(토) 북청 고향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그런데 그는 미국을 떠나올 때 조

선 선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였었다.

“내가 귀국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조선 선교본부 (Korea Missionary Headquarters)’를 경성(京城)에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조선의 중심부인 경성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환원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삼일운동의 여파로 일제(日帝)의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로부터 요주의인물(要注意人物)로 분류된 ‘나’에 대한 감시가 심하여 선교에 지장을 줄 것은 뻔한 일이므로 뜻을 접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그러므로 가장 최고의 선교 방법은 내가족과 친척들부터 먼저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78.]

‘고향에서부터 선교하겠다.’라고 결심한 동석기 선교사는 교회설립을 계획하고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였다. 첫 번째로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세히 소개하며 간절하게 협조를 부탁했다. 두 번째로 친척, 친지, 가까운 마을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차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 세 번째로 함경남도 북청군 이곡면 초리 1997번지에 있는 한옥을 예배 처소로 마련하였다. 네 번째로 한옥 중앙

에 ‘그리스도의 교회 함전예배당’[기독교의 교회(基督の教會) 함전예배당(咸田禮拜堂)]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영어로는 ‘Church of Christ’라고 표기하여 그리스도인교회와 구별했다.

